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 가정의 삶의 질 비교연구 - 가정자원관리학적 관점에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between urban
and rural households.

서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 교 수 조 영 회

광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 교 수 김 선 미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조 교 수 송 혜 림

우석대학교 가정학과

조 교 수 이 승 미

Dept. of Home Management, Seowon University

Assistant Prof. : Young Hee, Cho

Dept. of Home Management, Kwangju University

Assistant Prof. : Seon Mi, Kim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lsan University

Assistant Prof. : Dr. oec.Hye Rim, Song

Dept. of Home Economics, Woosuk University

Assistant Prof. : Seung Mie, Lee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IV. 분석결과 및 논의

V. 결론

참고문헌

*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지방대 육성과제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resource management on the quality of life. For this objective, we used the questionnaire.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ncluded 372 urban households and 423 rural household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ir resource environment. Statistical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Factor analysis.

The major findings were (1) the level of living, the standard of living and extent of successful resource management were higher in the urban households than the rural households. (2) The urban and rural households could reduce the gap between the level of living and the standard of living in food and nutrition area through the effective resource management. And only the rural households could reduce the gap between the level of living and the standard of living in leisure.

1. 서 론

가족의 삶의 질은 가족내 가용자원 및 가족의 근접환경과 광역환경에서의 가용자원을 가족의 요구에 적합시켜 효용을 얻는데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객관적 생활조건의 향상과 내적 만족감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논의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객관적 생활조건이 가정생활의 복잡한 과정을 통과하므로써 내적 만족감을 향상시킨다고 볼 때 그 과정이 무엇이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가족자원관리체계이론을 통해 본다면 객관적 생활조건은 가족원의 내적 만족감을 산출하기 위한 투입요소의 하나로서 산출의 수준은 관리활동이라는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 가족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가를 연구할 때에는 자원수준의 향상과 아울러 관리활동수준의 향상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자원은 관리활동에서 표준설정에 대한 근거가 되는 투입요소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으며,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은 관리의 가능성을 확대시켜 줌을 의미한다. 한편 주어진 자원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가는 관리활동의 성패에 달려 있다. 초기에 같은 수준의 자원을 가지고 출발한 두 가족이 관리

활동의 차이로 나중에 가서 생활수준이 다르게 될 수도 있고, 초기에 다른 수준의 자원을 가지고 출발한 두 가족이 관리활동의 차이로 나중에 같은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가족의 삶의 질이 자원수준의 높낮이와 관리활동의 성공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을 규명하므로써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대안제시에 구체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목표 하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생활의 기본 영역이며 관리활동의 범위가 되는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및 여가의 네 영역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반영하는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관리체계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도달하기를 바라는 생활 표준과 수준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므로 관리활동을 통하여 그 격차가 감소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표준 뿐 아니라 수준과 표준간의 격차, 그리고 이에 대한 자원수준과 관리활동이 미치는 복합적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여기서 개별 가정의 자원수준은 그 가족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도시나 농촌이나라는 거시적 환경에 의해 조건지워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자원수준이 다른 지역에서의 가족의 삶을 고려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삶의 질 개념과 측정방법

삶의 질은 한 국가의 총 국민생산량을 나타내는 양적·물질적 지표로서의 GNP가 갖는 한계와 제한점에 대면하여, 생활의 주체로서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의 생활영역 전반에 있어서 복지수준을 표현할 수 있는 질적 척도에 대한 추구를 통하여 나온 개념이다.

삶의 질은 자기 삶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 인식상태, 복지수준, 만족감, 행복감 등을 내포하기 때문에¹⁾ 객관적이고도 일반적인 개념을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많은 연구에 있어서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통일된 개념이 있다기보다는 연구대상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개념들이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채정숙·조희금·박충선·정영숙, 1996).

흔히 '삶의 질'이라는 개념은 생활의 복지 혹은 만족의 수준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다. 김정동, 이흥구 및 신도철(이기영, 1984에서 재인용)은 "물리적·경제적·신체적인 면과 함께 경제적·심리적 면에서의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면서 삶의 질의 향상은 외적 조건과 내적 만족의 향상을 뜻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삶의 질 개념은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해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농촌가정의 삶의 질을 연구한 최은숙과 김인숙(1990)도 인간의 바람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정의적 평가로서의 주관적, 심리적 만족으로 삶의 질을 규정함으로써(최은숙·김인숙, 1990) 삶의 질을 측정할 때 객관적, 주관적 측면을 다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Andrew와 Withey(1976)가 지적 하듯이 삶의 질이란 단지 인간의 물리적·대인적·사회적 환경조건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고 이러한 조건들이 어떻게 평가되는가와 관련된 것으로, 객관적

상태와 함께 그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를 나타낸다는 관점과(이기영, 1984에서 재인용)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한편 주관적 측면을 보다 강조한 연구에서는 개인의 삶의 질을 "인간이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삶 전반에 관한 주관적 만족감"으로 정의하고 있다(박미석, 1996).

한편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어떻게 개념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와 더불어 어떠한 척도 및 측정도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파악하고 진단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서구에서는 초기에 객관적 차원에서의 요인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점차적으로 심리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채정숙 외 3인, 1996). 여러 연구에서의 종합된 견해를 보면, 삶의 질의 내용은 가장 일반적 수준에서 말하는 '물질적, 객관적인 삶의 질'과 '정신적, 주관적인 삶의 질'로 규정할 수 있다(최은숙·김인숙, 1990). 즉 객관적 차원에서 살펴볼 때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상태가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가를 객관적인 척도로 측정하는 측면과, 주관적인 차원에서 생활의 제영역에 대한 만족감은 어느 정도인가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연구대상자 혹은 대상집단의 삶의 질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진단하는 것이다. 도시가정의 생활의 질을 연구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은 객관적 생활조건으로서 경제생활, 영양, 주거환경, 자녀교육, 가족관계, 건강, 가사노동, 여가생활 등의 하위영역을 측정하기도 하고(문숙재·정은숙, 1985), 경제적 생활수준, 가족관계, 생활환경, 자기성취, 생활의 자율성 등 객관적 여건과 주관적 여건을 포괄하기도 하였다(이기영, 1984). 외국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옥선화 외 4인(1991)에 따르면 주택, 여가시간활동, 가족공유활동, 건강, 재미, 시간, 직업, 정부의 효용성, 가족, 소비자, 화폐 등이 척도의 구성에 포괄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농촌가정의 생활의 질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척도를 보면 최은숙과 김인숙(1990)은 일반적 상황,

1) 예를 들어 Dalkey와 Rourke는 "생활의 질은 사람들이 느끼는 복지이며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나 불만족감, 행복이나 불행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이기영, 1984에서 재인용). 또한 국외 가정학자 중 Rice와 Tucker(1986)는 생활의 질을 인간이 느끼는 복지감의 수준으로 정의하면서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 성취를 통하여 인간이 얻는 행복감, 만족감으로 보고 있다.

객관적 생활상태, 주관적 만족도의 세 영역²⁾을 포괄했고, 한경혜(1980)³⁾는 객관적 생활조건과 주관적 만족도를 동시에 포함시켜 생활의 질 진단개념을 구성하고 있다(채정숙 외, 1996에서 재인용). 채정숙의 3인(1996)은 농촌지역을 읍, 면, 시로 나누고 삶의 질을 진단하기 위한 각 하위영역들⁴⁾에 대해 객관적인 실태와 그에 대한 대상자의 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객관적, 주관적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삶의 질의 개념정의와 그에 따른 측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조건을 삶의 요소로 활용한 결과에 의해 현재 가족이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을 삶의 질의 척도로 삼고자 한다.

2. 삶의 질과 관리활동의 중요성

가정자원관리에 대한 체계적 접근들은 가정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가정구성원의 욕구충족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에 관심을 두고, 욕구충족을 위한 자원의 사용과 관련된 일련의 행동과정 및 구성요소를 체계화시키고 있다. 이에 의하면 가정자원관리행동은 가족의 욕구충족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요구가 그대로 관리행동의 목표가 되기보다는 요구를 달성하는데 사용될 자원의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실현 가능한 형태로 전환되어, 이것이 관리행동의 구체적인 목표로서 기능하게 된다. 여기서 실현 가능한 형태는 '표준(standard of living)'으로서, 이것은 그 가족이 기대하는 생활수준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표준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원은 자원관리행동을 수행하며, 그 결과 가족은 표준과 일치하는 혹은 표준에 근접한 생활상태를 갖게 된다. 이것은 바로 그 가정이 향유하는 '생활수준(level of living)'을 의미하게 되는데,

생활수준의 평가는 기대하였던, 또한 달성하고자 하였던 표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자원관리행동의 산출요소로서의 만족감으로 나타나며 곧 삶의 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가정자원관리행동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체계로서, 바라는 생활수준과 현재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매개하는 요소가 되는데 현재의 생활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관리체계내에서 표준과 수준의 관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생활수준을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은 초기에 성취하고자 했던 열망으로서의 표준에 근접하는 것이다. Deacon & Firebaugh(1988)는 관리활동의 효과를 동일한 초기상태가 서로 다른 결과로 또는 서로 다른 초기상태가 동일한 결과로 갈 수 있는 것을 관리활동의 효과로 파악하면서 각각의 이름을 다중 결과성(multi-finality)과 동일 결과성(equi-finality)으로 부르고 있다. 즉 동일한 자원을 지닌 두 가정이라도 관리활동의 성패에 따라 상이한 생활수준을 누리는가 하면 자원이 다른 두 가정이 관리활동에 의해 동일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도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생활수준 뿐 아니라 표준을 측정하고 가족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수준을 표준에 어느정도 근접시키고 있으며 그에 대한 관리활동의 기여가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관리활동이 제약을 받는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만약 관리활동이 표준과 수준의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규명된다면 개별가족들로서는 주어진 환경에서 노력하여 생활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될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 즉 관리활동으로는 표준과 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의 삶의 질은 자원의 개선으로서만 가능하다.

2) 이 연구는 식생활(영양), 보건위생(건강), 주거환경, 가사노동, 자녀교육, 경제생활, 여가생활, 가족관계의 여덟가지로 하위영역을 구분하였다.

3) 영양, 건강, 주거, 작업조건, 교육, 가족관계, 경제적 안정성, 여가 등 하위 여덟개 영역에서 진단지표가 설정되었다.

4) 하위영역으로 지역환경, 지역서비스, 주거, 가족, 사회망, 교육, 건강, 고용 및 가사노동, 여가, 경제생활 등을 고려하였다(채정숙 외, 1996).

3. 관리활동의 제약 또는 촉진요인으로서의 자원 환경

객관적인 자원환경은 표준설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산출로서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표준이란 가족이 현재의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달성가능한 목표를 설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똑같이 관리활동을 잘 하는 두 가족이 있다고 할 때 산출로서 생활수준을 상이하게 하는 제약요인은 바로 자원수준이 된다.

가족의 객관적인 자원환경에 있어서 가족내 자원과 근접환경 또는 광역 환경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특성이라고 볼 때 특성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도시와 농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생활용품의 상품화 수준, 시장의 조건, 정보수준과 정보체계, 행정지원체계 등은 가족의 가치나 요구, 자원 유용성의 한계를 제한함으로써 가족들이 표준을 설정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늘날 이러한 환경적 조건 중 대표적인 경계는 도시와 농촌간의 환경적 조건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 이후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 사회문화, 교육, 의료 등 사회발전의 모든 부문이 도시에 편중되어 도시와 농촌간 생활양식에 많은 차이가 생겨 도농간의 문제가 산업화의 부산물로 남게 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확산 결과로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미디어가 보급되었으며 지방자치체가 실시되는 등 도농간 격차를 줄이고 공유의 영역을 넓히는 발전도 일어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이라는 환경적 차이는 곧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객관적 자원의 양과 질을 규정하므로

이런 양과 질에 근거하여 사람들은 표준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표준이 그렇게 설정된다는 성격으로부터 수준도 객관적인 자원의 양과 질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제로 도농간 가정생활의 표준과 수준을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도시와 농촌간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자원환경이 좋은 도시가족이 높은 표준을 설정하며 그것이 또다시 높은 수준의 산출을 가져오는 것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아주 흥미롭다.

또한 물질 자원과 인적자원을 포괄하여 도시와 농촌의 자원수준을 파악한다면 인적자원에 의한 관리활동의 수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지 알아 볼 수 있다. 도농간 자원환경을 비교할 때 관리활동과 관련된 자원으로는 가족내 자원으로서 화폐소득과 현물소득(농산물)등의 물질 자원과 연령, 교육수준, 가족수와 같은 인적자원을 들 수 있고, 근접자원으로는 접근가능한 직업의 종류와 취업가능성, 주거환경, 구매를 위한 시장환경 등이 있으며 광역자원으로는 공기와 자연환경 등을 들 수 있다. 광역자원을 제외하고 가족내 자원들과 근접자원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전국규모의 통계자료(통계청, 1996)를 통해서 볼 때 도·농간에는 위와 같은 자원의 대부분이 도시가 농촌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자원환경이 다른 도시와 농촌에서 가족이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으며, 관리활동을 통해 삶

- 5) 다즈오나루세(1988)가 제시한 도시와 농촌에서 대비되는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족은 노동력을 상품화하는 임노동자가족의 형태를 띠며 가족생활은 노동력의 재생산에 초점이 모아지며 이렇게 노동력의 재생산활동에 가장 효율적인 최소한의 크기인 핵가족형태를 보편적으로 유지한다. 2) 도시가족은 자금조건을 갖지 못한채 사회적인 분업과 교환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되자 시장의 여건, 시장에서의 접근용이성 등이 생활의 질을 중요하게 결정짓는다. 따라서 물가변화에 민감하고 물가와 생계비 상승은 보다 크게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3) 직장과 주거의 뚜렷한 분리로 집에 부여하는 도시인의 의미는 일과 여가의 구심으로서 농촌의 집이 갖는 의미와 다르다. 4) 노동과 휴식의 엄격한 분리로 인해 도시인에게 있어서 여가나 휴식에 대한 인식과 요구는 농촌의 경우와 다르다. 5) 사회적 분업과 교환에 의존하는 도시생활에서 이러한 분업과 교환을 매개하는 것은 정보와 정보수단이 되어 도시인으로서의 정보자체가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전화 등의 정보미디어가 생활의 중요 수단이 된다.

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현재 가정생활의 수준은 도시와 농촌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 2) 도시와 농촌간에 가정생활 영역별 표준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 3) 가정생활영역별 관리활동수준은 도시와 농촌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 4) 표준과 수준간의 격차와 관리활동은 어떤 관계를 보이는가?

2. 연구방법

1)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기본적인 가정생활의 네 영역인 식생활과 의생활 그리고 주생활과 여가에 있어서 가족의 요구 및 객관적 자원과 관련된 항목들을 선정하여 가족의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내는 표준과 그 성취의 정도인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구성을 영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생활 영역은 최근 연구결과들(김정현 등, 1992; 오혜숙·윤교희, 1995; 오세영, 1993; 정진은, 1992)을 참고하여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영양균형과 총실도, 별식과 간식·외식 등 다양한 종류의 식사, 식사준비환경과 식사환경, 보조식품의 이용, 가공식품과 편의식품·인스턴트식품·고유식품에 대한 요구, 식생활에 할애하는 금전자원, 식생활관련 시장환경 등이 포함되었는데, 표준의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0.89이고 수준의 척도에 관한 신뢰도는 0.66이다.

둘째, 의생활 영역은 선행연구(김미영, 1989)를 토대로 하여 의복과 관련된 필수적 요구와 선택적 요구로서 구색과 용도를 포함한 양적인 측면과 유행성·심미성·상징성·사회심리성·실용성·경제성·관리성 등의 질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의복의 구매와 관리에 필요한 금전과 시간자원, 교통시설이나 시장과의 근접성·세탁소·세탁기·수선소 등 구매와 관리에 관련된 기기와 시장조건 및 환경조건 등

을 포함하여 14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표준의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0.76이고 수준의 척도에 관한 신뢰도는 0.64이다.

셋째, 주생활 영역은 선행연구(이경희 등, 1997)를 토대로 하여 주거규범, 즉 공간규모를 포함한 공간규범과 지역사회시설의 질·저변환경의 질·서비스의 질 등의 근린환경규범, 기타 프라이버시와 실내디자인의 조화를 포함한 주거질의 규범, 주거비 지출규범을 내용으로 하여 14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표준의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0.91이고 수준의 척도에 관한 신뢰도는 0.72이다.

넷째, 여가영역은 선행연구(김외숙, 1991; 홍성희, 1991; 이승미, 1997)를 토대로 하여 휴식시간의 확보, 일과 여가간의 균형, 가족단란·기분전환 및 재충전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여가에 대한 요구, 그리고 시간과 금전 및 인적자원과 같은 여가자원의 영역을 고려하여 최종 15문항을 구성하였는데 표준의 신뢰도는 0.92이고, 수준의 신뢰도는 0.76이다.

그리고 네 영역에서의 관리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식생활 관리활동은 식단과 식품마련의 계획성, 구매 합리성, 식품유해성에 대한 주의, 부엌과 조리기구의 위생점검, 가족들의 식습관과 영양상태 점검, 식생활정보의 수집과 활용, 식사분위기 조성노력, 식구간 선호조절, 남은 재료의 활용을 통한 자원의 합리적 사용 등을 포함하여 10문항을 구성하였는데 신뢰도는 0.78이다.

의생활 관리활동은 비교구매, 가족별 의복점검 및 계획구매, 정리 및 처분, 배치와 관리상태에 관한 점검과 조정, 식구의 선호파악 및 구매시 반영, 의복의 재활용계획, 세탁물 취급방법의 확인 등 8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신뢰도는 0.75이다.

주생활 관리활동은 실내온도와 습도 및 청결상태의 점검, 주택 및 시설 마련과 확장을 위한 저축, 실내외 분위기와 시설 및 수납공간의 점검, 주택정보의 수집, 열효율관리 등 7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신뢰도는 0.79이다.

여가관련 관리활동은 가족간 공유시간 스케줄의 조정, 여가비의 계획적 비축, 여가정보의 수집 등 3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신뢰도는 0.78이다.

2) 조사방법

조사대상은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네 지역의 도시와 농촌을 모집단으로 하여, 도시는 각각 1개곳으로 하고, 농촌은 다시 군단위 지역과 읍,면단위 지역으로 분리하여 농업생산방식과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지역을 선정하였는데, 그 지역의 특성은 <부록 1>과 같다.

자료수집은 1997년 1월에 실시된 예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1997년 4월 15일-5월 10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조사의 조사대상은 선정된 지역의 가정을 대상으로 연령과 부인의 취업여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유의표집하였다. 조사방법은 각 지역의 대

학생들을 조사원으로 하여 관리활동의 주요 담당자인 주부에게 개별 방문하여 조사하였는데, 배포된 900부 중 최종자료로 도시 372사례와 농촌 423사례의 796사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에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설정된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 t-검증, 피어슨의 적률 상관관계계수, 요인분석을 적용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검증은 크론바하의 알파를 이용하였다.

3. 조사지역과 조사대상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 분	도 시	농 촌	변수	구 분	도 시	농 촌
남편의 연령	29세 이하	19 (5.3)	16 (4.1)	부인의 연령	29세 이하	31 (8.6)	48 (11.4)
	30-39세	73 (20.5)	121 (31.4)		30-39세	108 (29.8)	139 (33.1)
	40-49세	145 (40.6)	118 (30.6)		40-49세	175 (48.3)	121 (28.8)
	50-59세	111 (31.1)	86 (22.2)		50-59세	45 (12.5)	73 (17.4)
	60세 이상	9 (2.5)	45 (11.7)		60세 이상	3 (0.8)	39 (9.3)
남편의 교육 수준	초등학교졸	11 (3.1)	52 (14.2)	부인의 교육 수준	초등학교졸	30 (8.2)	77 (20.5)
	중 졸	37 (10.3)	72 (19.7)		중 졸	78 (21.4)	96 (25.6)
	고 졸	131 (36.4)	160 (43.8)		고 졸	160 (44.0)	156 (41.6)
	전문대 이상	181 (50.3)	81 (22.2)		전문대 이상	96 (26.4)	46 (12.3)
남편의 직업	생산·판매기술직	22 (6.5)	18 (5.0)	부인의 직업	생산·판매기술직	6 (1.8)	7 (1.8)
	자영상인·기술자	82 (24.3)	87 (24.0)		자영상인·기술자	30 (9.0)	37 (9.3)
	전문기술·사무직	158 (46.9)	86 (23.7)		전문기술·사무직	54 (16.2)	60 (15.0)
	경영관리·전문직	61 (18.1)	26 (7.2)		경영관리·전문직	14 (4.2)	12 (3.0)
	농 업	6 (1.8)	142 (39.1)		농 업	2 (0.3)	133 (33.3)
은퇴/무직	8 (2.4)	4 (1.1)	주 부	228 (68.3)	150 (37.6)		
자녀수	없 다	16 (4.3)	15 (3.6)	현재 거주 가족수	2명 이하	21 (5.7)	70 (16.6)
	1명	35 (9.4)	51 (12.1)		3명	46 (12.4)	65 (15.4)
	2명	159 (42.9)	147 (35.0)		4명	133 (35.8)	120 (28.5)
	3명	114 (30.7)	98 (23.3)		5명	115 (30.9)	92 (21.9)
	4명 이상	47 (12.7)	109 (26.0)		6명 이상	56 (15.1)	74 (17.6)
주택 소유 형태	자 가	295 (79.3)	340 (80.4)	난방 방식	채래식 아궁이	0 (0.0)	3 (0.7)
	전 세	61 (16.4)	57 (13.5)		연탄 보일러	2 (0.5)	4 (0.9)
	월 세	4 (1.1)	10 (2.4)		기름 보일러	219 (59.0)	361 (85.6)
	무상(기타 포함)	12 (3.2)	16 (3.8)		가스 보일러	150 (40.4)	53 (12.6)
년간 소득	천만원 미만	12 (3.5)	28 (7.4)				
	천-2천만원 미만	62 (18.0)	95 (25.3)				
	2천-2천5백만원	97 (28.2)	116 (30.9)				
	2천6백-3천만원	77 (22.4)	58 (15.4)				
	3천1백-4천만원	58 (16.9)	44 (11.7)				
4천1백만원 이상	38 (11.0)	35 (9.3)					

IV. 분석결과 및 논의

〈표 2〉 식생활영역의 요인별 도시, 농촌의 표준과 수준

1. 도시와 농촌의 각 영역별 수준과 표준의 정도

(1) 식생활영역

식생활영역의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식생활에 대한 기본적 요구로 명명된 첫번째 요인은 세끼 식사의 필요성, 고기·생선·야채·과일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 별식, 간식의 필요성, 가족원과 함께 하는 식사, 된장, 고추장, 김치 등을 집에서 담는 것의 문항이 포함되어 기본 장류나 김치를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을 식생활에 대한 기본적 요구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식생활의 자원 및 환경으로 명명된 요인은 식품구입과 관련된 시장 환경, 식품을 손질·저장·조리할 수 있는 공간, 기구, 시설, 식사공간, 경제적 자원으로 구성되었다. 세번째 요인은 한식 이외 일식, 양식, 중식 등의 다양한 식사, 외식의 중요성, 건강보조 식품이나 보충 영양제의 필요성의 문항이 함께 묶여, 이를 식생활의 문화성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요인으로는 계절별 제철 음식의 필요성,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식품을 먹지 않는 것, 상품화된 양념을 먹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 이를 식품에 대한 보수성으로 명명하였다.

먼저 현재의 식생활수준이 세부요인별로 도농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식생활의 자원 및 환경, 그리고 식생활의 문화성 수준이 농촌보다 도시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가 농촌보다 시장환경이나 조리공간, 기구, 식사공간, 경제적 자원 등의 식생활 관련 자원이 더 풍부하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나 외식, 건강보조 식품이나 보충영양제를 섭취하는 정도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식생활에 대한 기본적 요구와 식품에 대한 보수성에서는 농촌이 도시보다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이 도시보다 세끼 식사를 걸르지 않는 정도나 제철 음식을 먹는 경우가 더 많고 식생활의 상품화정도가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식생활영역의 세부요인에 대한 표준은 어느

영역	수준			표준		
	도시	농촌	t값	도시	농촌	t값
식생활에 대한 기본적 요구	3.59	3.64	-1.15	4.13	4.14	-0.49
식생활의 자원 및 환경	3.40	3.22	4.49***	3.77	3.65	2.41*
식생활의 문화성	3.03	2.85	3.51***	2.95	2.88	1.28
식품에 대한 보수성	3.39	3.44	-1.04	3.77	3.64	2.40*

정도이며, 도농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표 2〉에서와 같이 식생활의 환경 및 자원 부분에서, 그리고 식품에 대한 보수성에서 도시가 농촌보다 표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식생활에 대한 기본적 요구와 식생활의 문화성에 대한 표준은 도농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도농간의 표준과 수준을 비교해 보면 몇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식생활의 문화성에서 도시가정의 표준보다 실제 수준이 더 높다는 점이다. 이는 도시가정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음식에 대한 요구, 가족에게 있어서 외식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 혹은 건강보조식품·보충영양제의 필요성에 관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실제 식생활은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고, 실제 외식을 많이 할 뿐 아니라 보충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먹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현재 도시가정의 식생활수준의 한 특징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둘째로, 식품에 대한 보수성에서 도시가정의 표준이 농촌보다 유의하게 높았지만, 실제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농촌의 보수성 수준이 더 높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결과는 도시의 경우 제철 식품에 대한 요구 뿐 아니라 상품화된 식품이나 양념류에 대한 거부감이 도시가정에서 더 높으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상품화된 식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나 경제적 여건, 그리고 편의성을 추구하는 구매행태 등에 의한 것으로 생각

된다.

셋째로, 식생활영역에서 도농간에 관계없이 표준 뿐 아니라 실제 수준 모두 가장 높은 부분은 식생활에 대한 기본적 요구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도달하기를 바라는 정도만큼 가장 많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역시 세끼 식사를 걸르지 않고 먹거나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 혼자보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기본 장류나 김치를 집에서 만들어 먹는 등의 기본적인 요구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표준과 수준 모두 가장 낮을 뿐 아니라 그 차이 역시 가장 적은 부분은 식생활의 문화성으로 나타났다.

(2) 의생활영역

의생활영역의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의 명칭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생활 자원 및 환경으로 명명된 첫 번째 요인은 경제적 자원, 옷을 고르거나 손질·관리하는데 필요한 시간자원, 세탁이나 다림질 등에 필요한 설비나 기구, 빨래 말리는 장소, 시장의 근접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의복의 다양성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 뿐 아니라 용도에 맞는 의복의 구비, 그리고 유행이나 신분에 맞는 의복의 구비가 포함되었다. 의복의 실용성으로 명명된 세 번째 요인은 스타일보다는 활동하기 편한 옷, 의복손질의 용이성, 예산에 맞는 의복구입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의생활수준이 세부요인별로 도농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세 요인 모두 도농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만, 요인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즉 의생활의 자원 및 환경, 그리고 의복의 다양성 수준은 도시가 농촌보다 높는데 반해, 의복의 실용성은 농촌이 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생활영역의 세부요인별 표준이 도농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면 <표 3>에서와 같이 의생활 자원 및 환경에 대한 표준은 도농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복의 다양성과 실용성에 대한 표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요인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데, 의복의 다양성에 대한 표준은

<표 3> 의생활영역의 요인별 도시, 농촌의 수준과 표준

영역	수준			표준		
	도시	농촌	t값	도시	농촌	t값
의생활 자원 및 환경	3.59	3.45	3.12**	3.73	3.73	0.09
의복의 다양성	3.57	3.47	2.32*	3.88	3.77	2.42*
의복의 실용성	3.55	3.64	-2.09*	3.85	3.94	-2.18*

도시가 농촌보다 높는데 반해 의복의 실용성에 대한 표준은 농촌이 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의생활영역의 특성을 지적하면 다른 생활영역과 달리 의생활 요인 중 의복의 실용성부분에서 농촌이 도시보다 수준 뿐 아니라 표준이 모두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점이다. 이는 농사일이 중심인 농촌생활의 경우 그 활동의 특성상 의복의 실용성을 중시하는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도시의 경우 의복의 다양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익명성을 지니는 도시생활에서 의복이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대변하는 상징성을 떨 뿐 아니라 자동차나 의복이 과소비의 대상인 된다는 점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생활영역에서 의복이 갖는 의미가 도농간에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생활의 자원과 환경요인에서 이우기를 원하는 정도인 표준에서는 도농간에 차이가 없지만, 실제 수준에서는 도시가 농촌보다 자원과 환경이 더 풍부한 것으로 나타나 도농간의 차이를 알 수 있다.

(3) 주생활영역

주생활영역의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2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요인의 명칭은 주거공간의 적절성과 쾌적성, 주생활의 자원 및 근린환경이다. 각 요인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거공간의 적절성과 쾌적성의 경우 주거 최소공간의 확보, 사생활 보장을 위한 공간구조, 실내온도·습도유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햇빛, 수납공간 등의 내용이 함께 묶인 것으로 볼 때 주생활에

있어서 보다 필수적인 요소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반면에 주생활의 자원 및 근린환경에는 조명밝기, 안전을 위한 문단속, 실내분위기의 적절성, 돈에 구애받지 않는 난방의 가능성, 깨끗한 공기, 사회기관의 근접성, 시설 수리에 대한 용이성과 시장환경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앞서의 요인에 비해 선택적인 요구와 자원의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주생활영역의 요인별 도시, 농촌의 수준과 표준

영역	수준			표준		
	도시	농촌	1값	도시	농촌	1값
주생활의 자원 및 근린환경	3.48	3.28	5.74***	4.11	3.88	4.77***
주거공간의 적절성과 쾌적성	3.74	3.63	2.09*	4.15	3.99	3.06**

주생활영역의 세부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표 4〉에서와 같이 주거공간의 적절성과 쾌적성, 그리고 주생활의 자원과 근린환경의 수준 모두 도시가 농촌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부영역에 대한 표준 역시 도시가 농촌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생활의 경우에는 세부요인에 관계없이 도시가 농촌보다 수준 뿐 아니라 표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두 요인을 비교해 보면, 주거공간의 적절성과 쾌적성 요인이 주생활의 자원 및 근린환경 요인보다 도농간의 차이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 앞서의 언급과 마찬가지로 주거공간의 적절성과 쾌적성이 주생활에 있어서 보다 필수적인 요소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4) 여가영역

여가영역의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2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의 명칭과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여가유형으로 명명된 첫 번째 요인에는 휴식시간의 확보, 일과 휴식간의 조화와 같은 여가에 대한 기본적 요구 뿐 아니라 가족단란시간, 이웃이나 친구와의 교류, 운동의 필요성, 강습·취미·문화생활, 야외나들이나 여행과 같은 다양한 여가에 대한 요구

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요인인 여가의 자원 및 환경은 여가를 위한 경제적 자원, 시간자원, 여가를 함께 할 사람의 여부, 가족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의 여부, 여가를 위한 정보, 여가에 필요한 기구나용품, 다양한 여가시설의 근접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표 5〉 여가생활영역의 요인별 도시, 농촌의 수준과 표준

영역	수준			표준		
	도시	농촌	1값	도시	농촌	1값
여가유형	2.97	2.81	4.09***	3.96	3.73	4.45***
여가의 자원 및 환경	3.10	2.84	7.45***	3.59	3.40	3.50***

먼저 여가의 세부요인의 수준을 살펴보면 〈표 5〉에서와 같이 여가유형 뿐 아니라 여가의 자원 및 환경요인 모두 도시가 농촌보다 현재 누리고 있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부요인에 대한 표준 역시 도시가 농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가영역 역시 앞서의 주생활영역과 마찬가지로 수준 뿐 아니라 표준 모두 도시가 농촌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여가생활의 수준을 요인별로 비교해 보면, 기본적인 요구 뿐 아니라 다양한 여가에 대한 요구의 실현정도인 여가유형의 수준보다 여가에 필요한 자원의 수준이 도농간에 더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영역에서도 역시 농촌의 자원이 훨씬 더 반약함을 잘 보여준다.

2. 가정생활 영역별 도농간의 관리활동 수준

가정생활 영역별 관리활동의 내용은 영역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정보수집, 계획, 점검, 조정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관리활동의 수준을 각 영역별로 도시와 농촌간에 비교해 보면 〈표 6〉에서와 같이 영역에 관계없이 도시의 주부가 농촌의 주부보다 관리활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도농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시가정이 농촌보다 관리활동

〈표 6〉 도시, 농촌의 각 영역별 관리활동 수준

영역	관리활동 수준		
	도시	농촌	t값
식생활	3.40	3.26	3.90***
의생활	3.55	3.40	3.74***
주생활	3.24	3.06	3.79***
여가	2.80	2.61	3.17**

을 위한 물질 자원, 즉 연간소득과 같은 경제적 자원, 시장의 조건이나 물리적 근접성 등과 같은 사회환경적 자원이 더 나은 점 뿐 아니라 교육수준과 같은 인적 자원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영역별로 볼 때 도농간에 상관없이 여가에 대한 관리활동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도시와 농촌의 각 영역별 표준과 수준간의 격차와 관리활동간의 상관관계

먼저 가정생활의 각 영역별로 표준과 수준간에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으며, 이 격차는 도농간에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즉 표준과 수준간의 격차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도농간에 관계없이 식생활, 의생활보다 주생활, 여가의 영역에서 그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생활이나 여가보다 식생활이나 의생활이 보다 일차적인 욕구의 차원이며, 경제발전의 성과로 이 분야에 대한 요구가 우선적으로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같은 생활표준과 수준의 격차가 도농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면 〈표 8〉에서와 같이 의생활영역에서만 도농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도시보다 농촌의 경우 그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영역에 비해 시장환경에 의존하는 정도가 가장 큰 의생활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비해 나머지 세영역 모두 도농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점은 가정자원관리에 대한 체계적 접근틀로 볼 때 어느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즉 생활수준은 표준에 기초한 관리

〈표 7〉 도시, 농촌의 각 영역별 표준과 수준의 격차

영역	표준과 수준의 격차		
	도시	농촌	t값
식생활	0.65	0.66	-0.36
의생활	0.54	0.60	-2.20*
주생활	1.14	1.13	0.41
여가	1.32	1.27	1.23

활동의 결과인 동시에 다시금 피이드백 되어 가족이 바라는 생활표준의 기준점으로 작용하므로 도농간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가정은 일정한 정도의 표준과 수준간의 격차를 견지하면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표준과 수준간의 격차가 관리활동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살펴보면 〈표 8〉에서와 같이 먼저 식생활영역의 경우 표준과 수준간의 격차와 관리활동간에는 도농간에 관계없이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가정자원관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표준과 수준간의 격차는 관리활동의 결과로 파악되므로, 앞서의 관계가 부적이라는 점은 식생활에 대한 관리활동을 많이 한 결과 표준과 수준간의 격차가 적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영역과 비교해 볼 때, 식생활분야에서만 도시, 농촌 모두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주부의 가사노동시간 중 식사준비시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결과(이기영 외 3인, 1994)에서처럼 식생활분야가 가정관리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관리의 가능성, 즉 관리활동을 통해 원하는 표준과 수준의 격차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의생활영역과 주생활영역은 도농간에 관계없이 표준과 수준의 차이와 관리활동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시장환경에 의해 이미 조건화되어지는 부분이 크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리의 가능성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여가영역은 앞서와 달리 농촌의 경우에만 표준과 수준의

〈표 8〉 영역별 도농간 표준과 수준의 차이와 관리활동간의 상관관계

식생활 영역		의생활 영역		주생활 영역		여가 영역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0.131**	-0.173**	0.057	0.088	0.018	0.115	-0.112	-0.173**

차이와 관리활동이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시가정의 경우 공적 영역의 스케줄에 의해 여가를 위한 사적 시간의 확보가 어렵고 융통성 역시 적은 도시생활의 특성에 의해 여가생활에 대한 관리의 폭이 좁은데 반해, 상대적으로 시간의 융통성이 큰 농촌가정의 경우에는 여가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활동이 실제 여가활동으로 실행될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는 점에 의한 결과로 생각된다.

V. 결 론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가정생활 수준은 도시와 농촌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하여는 식생활과 의생활 및 주생활 그리고 여가의 네 영역에서 모두 농촌보다 도시가 높은 수준의 생활을 향유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와 비교할 때 농촌의 생활수준이 낮아 농촌의 생활의 질 향상에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에 가정생활 영역별 표준 역시 네 영역에서 모두 도시가 농촌보다 높았다. 가정은 가용 자원의 유용성을 고려하여 표준을 세운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농촌의 자원환경이 도시보다 뒤떨어지고 그 결과 낮은 표준을 설정하여 낮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게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농촌가족의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게 하려면 먼저 투입요소가 되는 표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농가소득의 증대를 비롯해 가족내 자원의 향상과 의·식·주·여가관련 시장여건이나 유통체계 및 공공재분야의 발전이 요구된다.

한편 관리활동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과 여가와 관련된 관리활동수준도 네 영역에서 모두 도시가 농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부의 인적 자원과 관련하여 도시주부가 보다 합리적인 관리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도시가 농촌보다 생활수준이 높은 것이 자원환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관리활동에 의한 것인지가 규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리활동의 초기목표로 설정된 표준이 관리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성취되었는가, 즉 표준과 수준간의 격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생활을 제외한 세 영역에서 표준과 수준간의 격차 자체는 도시와 농촌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식생활, 주생활 및 여가에 있어서 농촌과 도시의 가정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차이로 표준과 수준의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생활의 경우에는 농촌의 경우가 도시에 비해 표준에 훨씬 못미치는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다.

이와 같은 표준과 수준간의 격차가 관리활동에 의해 얼마나 좁혀질 수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도시와 농촌가정의 식생활영역에서, 농촌의 여가영역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도시와 농촌의 식생활과 농촌의 여가생활에서는 관리활동을 통해 생활의 질을 어느정도 개선할 수 있으나, 도농에 관계없이 의생활과 주생활영역에서, 그리고 도시에서의 여가생활은 상당부분 자원환경의 조건과 정도에 의해 좌우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영역의 생활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환경의 조정과 개선이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특히 표준과 수준간의 격차가 도농간에 유의미하였던 의생활영역의 경우 그 원인은 농촌의 의생활 관련 자원환경이 도시보다 크게 뒤떨어진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농촌 가정이 다양하고 질 좋은 의류를 낮은 가격에 구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장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구매

력을 높이는 정책이나 할인유통의 혜택이 농촌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유인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관리활동에 의해 그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식생활이나 농촌의 여가영역 역시 전반적인 자원환경 수준에서 농촌이 훨씬 더 열악하다는 앞서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이에 대한 개선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도시와 농촌에서 효과적인 관리활동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채널로는 여러 가지 매체나 기관을 통해 실시되는 식생활이나 여가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미영(1989). 생활양식유형과 의복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김외숙(199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3) 김정현·이인준·양일선·문수재(1992). 한국인의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한국식문화학회지 7(1), 1-7.
- 4) 김혜경·문수재·문숙재·윤정숙·이영(1990). 농가생활연구-한국농촌의 공업화에 따른 농가생활의 변화-. 서울 : 신광출판사.
- 5) 다쓰오 나루세 저(1988). 백옥인 역(1994). 생활양식론. 서울 : 민글.
- 6) 박미석(1995). 중년기 남녀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9-33.
- 7) 오세영(1993). 생물학적, 문화적 측면에서 본 한국인의 식생활 행동: 지난 50여년을 중심으로. 한국식문화학회지 8(4), 138-154.
- 8) 오혜숙·윤교회(1995). 서울지역 주부들의 건강과 관련된 식생활 의식구조.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0(3), 185-201.
- 9) 옥선화·이기춘·이기영·이순형·공인숙(1991).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40대 중산층 주부가 지각한 가정생활의 제문제. 대한가정학회지 29(2), 135-154.
- 10) 이경희·윤정숙·홍형옥(1997). 주거학개설. 서울 : 문운당.
- 11) 이기영(1984).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3), 111-128.
- 12) 이기영·김외숙·서창원·이승미(1994). 도시 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31-46.
- 13) 이승미(1997). 가족공유시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4) 임정빈(1990). 농촌가정생활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 농촌가정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8(4), 135-154.
- 15) 정진은(1992). 한국 노인의 식품에 대한 개념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7(3), 281-289.
- 16) 조미환·임정빈(1991).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 유형과 가정생활만족. 대한가정학회지 29(2), 169-184.
- 17) 조희금(1989). 농촌주부의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I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45-161.
- 18) 채옥희·김정훈·박성옥(1992). 전북지역 농·어·산촌 주부의 가정생활요구도에 따른 가정생활 복지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3), 205-222.
- 19) 채정숙·조희금·박충선·정영숙(1996). 경산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실태 파악 및 복지대책 방안. 대한가정학회지 34(5), 13-27.
- 20) 최은숙·김인숙(1990). 농촌가정생활의 질 진단을 위한 일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87-100.
- 21) 통계청(1996). 한국의 사회지표.
- 22) 통계청(1995). 인구주택 총조사 잠정보고서.
- 23) 한국도시행정연구소(1996). 전국통계연람.
- 24) 한국여성개발원(1993). 농촌가족의 변화와 지속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여성개발원.
- 25) 한경미·황덕순(1990). 주부의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69-82.
- 26) 홍성희(1991). 주부의 여가활동과 여가계약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27) R.E. Deacon & F.M. Firebaugh(1988). 가정관리학연구회 역(1991). 가족자원관리. 서울:한울아카데미.

28) A.S.Rice & S.M.Tucker(1986). Family Life Management.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부록 1〉 조사대상지역의 일반적 특성

지역	항목		면적 (km ²)	인구 (명)	가구수 (개)	소득 (원) ²⁾	주요 산업 ⁴⁾	물가지수	시장 분포 (개)	의료기관 (개) ⁵⁾					
	도시	농촌													
충청북도	도시	청주시	153.50 (2.06%) 1)	531,195 (38.04%)	151,183	1993년 현재 6,085,000	①27.2 ②17.4 ③55.6 ³⁾ 농업 18,853명, 광공업 34,657명. (조립금속 기계장비, 섬유·의복가족 제조업 발달)	1990=100일 때 1994년 현재 126.8	24	354					
	농촌	영동군	845.05 (11.36%)	62,002 (4.44%)	18,949						농업 31,481명, 광공업 2,391명. (비금속광물 제조업)	9	32		
		음성군	522.40 (7.02%)	78,252 (5.60%)	22,231						농업 32,855명, 광공업 13,064명. (조립금속 기계장비)			4	27
전라남도	도시	광주광역시	501.32	1,273,854	371,154	1993년 현재 5,073,000	① 6.1 ②14.8 ③79.1 전문기술·행정·관리·사무관련직 종사자(29.7%), 판매·서비스직(34.3%), 농림수산업(6.5%), 생산·운수장비·운전자·단순노동자(29.5%), 조립 금속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가구 및 기타	1990=100일 때 1994년 현재 128.9	45	897					
	농촌	영암군	523.59 (4.41%)	55,534 (2.68%)	18,852						1993년 현재 6,107,000	①46.0 ②11.7 ③42.2 농업 37,004명, 광공업 1,589명. (음식료품, 비금속광물제품)	1990=100일 때 1994년 현재 128.2	6	19
		영광군	473.34 (3.99%)	68,639 (3.32%)	22,124						농업 35,566명, 광공업 1,589명. (음식료품, 비금속광물제품)	5			
전라북도	도시	전주시	206.38 (2.57%)	563,406 (29.62%)	152,546	1993년 현재 4,945,000	①29.8 ②14.8 ③55.4 농업 23,302명, 광공업 18,831명. (화학·섬유·고무·프라스틱, 종이·인쇄·출판)	1990=100일 때 1994년 현재 131.3	20	444					
	농촌	진안군	789.26 (9.81%)	32,082 (1.68%)	11,428						농업 25,408명, 광공업 464명. (식품·담배)	10	35		
		김제군	467.44 (5.81%)	115,430 (6.07%)	35,930						농업 64,974명, 광공업 1,477명. (조립금속기계장비)			2	38
경상남도	도시	울산시	1,052.80 (8.9%)	967,394 (25.16%)	276,289	1993년 현재 8,025,000	①17.8 ②27.4 ③54.8 농업 6.8%, 2차산업 45.1%, 3차산업 35.6% (자동차 트레일러제조, 기타운송장비 제조)	1990=100일 때 1994년 현재 124.2	40	489					
	농촌	울주군	869.95 (7.4%)	185,096 (4.81%)	53,364						농업 59.7%, 공업 10.7% 쌀, 맥류, 두류, 과일, 특용작물, 복합영농(한우, 젖소, 닭 사육)	10	48		

자료 출처: 인구, 가구수는 인구주택 총조사 잠정보고서, 통계청, 1995. 11. 1 현재, (pp130-191) 그 외는 전국통계연람, 한국도시행정연구소, 1996, (中 pp500-655, 下 pp282-937) * 1) 면적, 인구 괄호 안의 %는 각 도와의 비율임. 광주광역시에는 예외(즉 광주광역시에는 그 자체로서 100%를 이룸)

2) 1인당 도내 총생산3) ①농,림,어업 ②광공업 ③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 1994년 현재 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에 종사하는 각 지역 인구수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음(울산시 제외) 5) 합계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외.